

호주산 쇠고기 사재기 조짐

광우병 파동 美產 판매 줄자 수요 급증

일부 업자들 물량 확보전... 가격도 들썩

호주산 쇠고기에 대한 '매점매색' 조짐이 보이고 있다.

미국 광우병 파동으로 미국산 쇠고기 소비는 끊겼고 한우는 가격이 비싸 상대적으로 호주산 쇠고기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일부 수입 업자와 중간 도매업자들이 '사재기'에 나섰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조만간 호주산 쇠고기 재고 물량이 비단아면 가격이 치솟을 것으로 예상된다.

29일 관리업체에 따르면 호주산 쇠

고기 목 등심 도매 가격이 최근 kg당 300~500원 가량 더 올랐다.

축산물 도매전문인 A업체 관계자는 "호주산 쇠고기 수입업체와 중간 도매업체가 물량을 풀지 않아 가격이 조금씩 오르고 있는 상황"이라며 "아직은 재고물량이 있어 소매업체에 납품을 하고 있지만 주가로 물량확보를 하지 못할 경우 가격 폭등까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또 그는 "현재 중간 도매업체로부터 호주산 쇠고기 물량 공급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

며 "수입업체와 중간 도매업체들이 물량을 계속 풀지 않을 경우 도매가격 상승은 물론 소매가까지 올라 이로 인한 피해는 결국 소비자에게 돌아가게 된다"고 우려했다.

현재 호주산 쇠고기(불고기용) 소

매 가격은 kg당 1만3000원 수준으로 아직 도매가격 상승분은 반영되지 않았다. 하지만 도매 가격이 kg당 1000 원 이상 오를 경우 소매 판매가격에 가격 인상분을 반영하겠다는 것이 도매업계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수입산 쇠고기를 취급하는 식당들도 미국산에서 호주산으로 대체 계획을 세우는 등 지역에서 호주산 쇠고기 대량 수요는 늘고 있다.

광주시 서구에서 고기뷔페를 운영

하는 이모씨는 "평소 저렴한 가격 때

문에 미국산 쇠고기를 찾았던 손님들이 호주산을 많이 찾는다"며 "미국산 쇠고기는 재고물량까지 판매하고 호주산으로 대체할 계획이지만 호주산 가격이 더 오르다면 영업에 타격이를 같다"고 말했다.

미국산 쇠고기 매출은 급감했다.

이마트 광주점의 경우 광우병 파동이 터진 지난 주말 미국산 쇠고기 매출이 전주보다 26%나 줄었다.

이마트 관계자는 "미국산 쇠고기는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검역을 통과한 만큼 문제가 없지만 소비자들이 거의 찾지 않고 있다"며 "한우나 호주산 등이 반사이익을 얻지 않을까 했지만 오히려 육류 전반적으로 매출이 소폭 떨어졌다"고 말했다.

/이은미기자 emlee@kwangju.co.kr



환경사랑 그림 그리기

롯데백화점 광주점이 29일 광주시 북구 금호 패밀리랜드 잔디공원에서 개최한 '그린 롯데 환경 미술대회'에서 어린이들이 그림을 그리고 있다. (롯데백화점 광주점)



대한건설협회 광주시회 제24회 정기총회가 지난 27일 광주 신양파크 호텔에서 열렸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광주건설협회 박치영회장 연임

만장일치 추대... "공동도급 활성화"

"지역 건설업체들의 일감이 늘어날 수 있도록 대형공사의 분할 발주와 지역의무 공동도급 활성화에 주력하겠습니다."

대한건설협회 광주시회 박치영(67·모아종합건설 회장) 회장이 연임됐다. 박 회장은 지난 27일 광주 신양파크호텔에서 열린 '제24회 정기총회'에서 임기 3년의 건설협회 광주시회 제9대 회장에 만장일치로 추대됐다.

박 회장은 이날 취임식에서 "지역 건설환경이 어렵고 힘들지 만 터널 입구가 있으면 출구가 있듯이 희망을 잊지 말고 협회를 중심으로 시련을 극복해 재도약하

자"고 회원들을 격려했다.

박 회장은 이어 "불합리한 건설관련 제도를 개선하는 등 경영 애로를 해소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다음달 광주시와 공동으로 지역건설산업 발전방안 마련을 위한 세미나를 열어 건설업의 활로를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총회에서는 이주현 해관건설 대표이사가 건설산업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광주시장 표창을 받았다. 또 올해 사업계획안과 예산안을 의결·확정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내달 지역중소기업 경기전망 악화

다음달 광주·전남지역 중소기업 경기가 악화될 것으로 전망됐다.

29일 중소기업중앙회 광주·전남지역본부가 지역 중소제조업체 100개 업체를 대상으로 '2012년 5월 중소기업 경기전망'을 조사한 결과, 업황전망 경감도지수(SBTI)가 85.5로 전달(86.1)보다 0.6포인트 하락했다.

이는 대기업 납품물량 감소와 미국·유럽 등 글로벌 금융위기, 국제유가 상승 등으로 자동차, 전기·전자, 선박 등을 중심으로 수출 환경에 차이가 생겨 생산 및 내수 판매가 저조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경기변동 항목별로 보면 대부분의 항목에서 하락했다. 특히 생산(94.8

→89.3)과 내수(94.4→89.6), 수출(96.6→96.3), 경상이익(89.5→88.2) 등이 하락했다. 고용수준(89.2→87.0)은 전달보다 2.2% 하락하며 기준치(100)에 크게 미달해 인력부족 현상은 여전할 것으로 전망했다.

반면 자금사정(86.9→89.4), 원자재조달사정(94.5→100.0)은 소폭 올라 개선될 것으로 기대했다.

지역 중소기업은 최대 경영 애로사항(복수응답)으로 내수부진(55.8%)을 꼽았다. 이어 원자재가격상승(54.8%), 인건비 상승(44.2%), 업체간 과당경쟁(34.6%), 판매대금 회수지연(34.6%)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내달 2일부터 '국민연금 실버론' 시행

만60세 이상 연금수급자 저리 생활자금대출

국민연금공단 광주지역본부(본부장 노대우)는 다음달 2일부터 만60세 이상 연금수급자가 긴급히 자금을 필요로 하는 경우 일정액의 한도 내에서 발행주는 '국민연금 실버론'을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한편 이날 총회에서는 이주현 해관건설 대표이사가 건설산업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광주시장 표창을 받았다. 또 올해 사업계획안과 예산안을 의결·확정했다.

'국민연금 실버론'은 의료비, 배우자 장례비, 전·월세자금, 재해복구비 등으로 국민연금 수급자의 노후생활 안정을 위해 실시한다.

대부처고액은 연간 연금수령액의 2배(500만원 한도)이내 실제 소요액이며, 대부이자율은 3.56%로 5년만기 국고채권 수익률에 연동해 매 분기별로 변동금리를 적용하며, 5년 이내 원금균등분할 방식이다. 자세한 사항은 국민연금공단 콜센터(국번 없이 1355)로 문의하거나 공단 홈페이지(www.nps.or.kr)를 참조하면 된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모범납세자 돈 쌌게 빌려드립니다

국세청은 최근 신한은행과 '납세자의 날' 표창 등을 수상한 모범납세자에게 1억원까지 담보 없이 대출하고 금리도 1%포인트 까지 경감하는 우대혜택을 제공하기 위한 '모범납세자 금융 우대 협약식'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전국 단위 시중은

행 최초이며 성실납세로 쌓인 신용만을 대출한도와 금리에서 특별 우대 조건이 적용된다.

금융우대 대상자는 '10년 이후 납세자의 날에 세무서장 이상 표창 등을 수상한 모범납세자로서 표창을 수상한 날로부터 3년간 금융 우대혜택을 이용 할 수 있다.

국세청-신한은행
금융 우대 협약식

금융우대혜택 이용자는 모범납세자 증명과 함께 기타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신한은행 각 지점에 제출하면 된다. 모범납세자 증명은 국세청 홈택스(hometax.go.kr)를 통해 발급받을 수 있으며 신분증을 갖고 세무서 민원봉사실에서도 가능하다.

/최재호기자 lion@

기아차 분기 영업이익 1조원 시대

1분기 매출 11조7900억·영업이익 1조1206억 사상 최대 실적

기아자동차가 분기 영업이익 1조 원 시대를 열었다.

기아차는 지난 27일 서울 본사에서 진행된 기업설명회(IR)에서 1분기(연결재무제표 기준) 매출 11조7900억원, 영업이익 1조1206억원, 당기순이익 1조2013억원의 실적을 올렸다고 밝혔다.

매출은 작년 1분기보다 10.6%, 당기순이익은 26.0% 증가했다. 영업이익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3.4% 급증,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기아차는 모닝, K5, 스포티지R 등 주요 차종의 판매 호조와 브랜드 이미지 상승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1.6% 증가한 69만830대를 판매했다.

판매물량이 증가한데다 K5 등 중형차와 스포티지R·쏘렌토R 등 RV

차종의 판매비중 확대로 평균 판매단가가 개선돼 매출이 확대됐다.

영업이익은 안정적인 원가구조 유지와 시장경쟁력 강화에 따른 양적·질적 성장에 힘입어 급증했다. 당기순이익 증가에는 관계회사 투자손익 증가와 금융손익 개선 등이 도움이 됐다.

기아차는 다음달 초 출시할 프리미엄 셀리리 대형 세단 K9이 수입차들의 판매공세에 적극 대응하는 것은 물론 기아차의 브랜드 이미지 향상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기아차 관계자는 "올해 국내의 경기 전망이 불투명한데다 GM·도요타·혼다 등 최근 부진했던 외국업체들이 치열한 경쟁을 펼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해외판매 비중이 높은

기아차의 경영환경이 악화될 것"이라며 "지속적인 판매역량 강화와 내실경영을 통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로또복권

(제491회)				
당첨 번호		2등보너스 숫자		
8	17	35	36	39
42	4			
등 위	당첨금(원)	당첨자수		
1	6개 숫자 일치	3,304,634,438	4	
2	5개숫자+보너스 숫자일치	71,067,408	31	
3	5개 숫자 일치	1,619,919	1,360	
4	4개 숫자 일치	50,000	68,290	
5	3개 숫자 일치	5,000	1,133,544	

국제선 항공권 판매개시

>> 무안 - 북경 티켓 조인 240,000원~/ 무안 - 상해 티켓 조인 180,000원~ (Tax별도)

직판 1등

특가 상품

백두산 일찬여행

서파 대련 5일 449,000 원~
[혜리상품] 서파야북파 5일/6일 299,000 원~
불포함사항: 유류할증료, 비자, 기사/기아드립

[가정의집 홈쇼핑특집] 온천+특식+ول길간식점 북경수 4일 229,000 원~
특전: 고정비용 적용, 이스비리카크 온천 수영장 입장권 무료증정, 선선한바다온수호텔/비, 월빙새벽을벗길, 식물원/책

항공상품 제주도 3일 129,000 원~
[제주금itchef] 제주도 3일 329,000 원~
[제주금itchef] 제주도 3일 369,000 원~
포함사항: 선박료, 숙박비, 식사비, 일정내관광요금
불포함사항: 유류세(26,400원)

국제선 항공권 판매개시

>> 무안 - 북경 티켓 조인 240,000원~/ 무안 - 상해 티켓 조인 180,000원~ (Tax별도)

국제선 항공권 판매개시

>> 무안 - 북경 티켓 조인 240,000원~/ 무안 - 상해 티켓 조인 180,000원~ (Tax별도)

국제선 항공권 판매개시

>> 무안 - 북경 티켓 조인 240,000원~/ 무안 - 상해 티켓 조인 180,000원~ (Tax별도)

국제선 항공권 판매개시

>> 무안 - 북경 티켓 조인 240,000원~/ 무안 - 상해 티켓 조인 180,000원~ (Tax별도)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